

현장스케치



홀로 사는 노인, 지역사회에서 책임진다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결연사업추진본부 —

건강하고 밝은 노후가 보장된 세상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희망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잡아주는 손길 없이 혼자 쓸쓸하게 사망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계층의 만성적 질환이나 심신장애, 경제적 빈곤, 소외 등의 문제는 사회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바른 노인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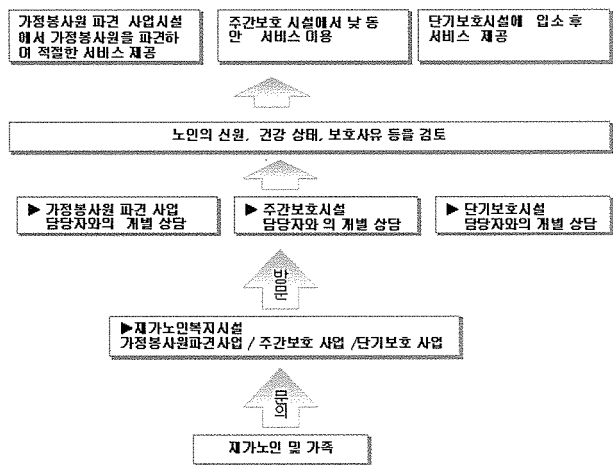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김용년 회장)는 지난 1992년에 재가노인사업을 실시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의 협의체로 출발하여 1995년 공식적인 법인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회에 등록된 전국 522개 회원시설과 10,526명의 봉사원, 2,095명의 종사자들이 23,07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시설간의 연락협력 및 조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전국 재가노인복지사업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재가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발행물 발간,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 상기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결연사업은 2004년 10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로또공익재단과 함께 전담기관으로 선정되어 재가노인결연사업추진본부를 따로 구성해 조선일보 우리이웃네트워크 10대 사업 중의 하나로 진행되는 특별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

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당면문제를 경감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인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대인적 서비스로, 예를 들면 상담, 여가 지원 사업,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뜻한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일반 노인이 루틴 대상이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 재가서비스의 절차안내

홀로사는노인 결연사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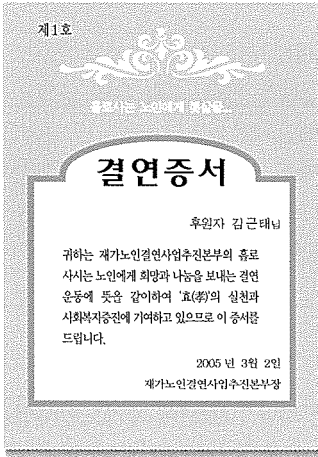
홀로 사는 노인 결연사업은 후원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홀로 사는 노인을 물질적 또는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1:1결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보호기능을 강화한 결연사업으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지난 2년간 준비하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따라서 많은 준비기간 끝에 2004년부터 보다 많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재가노인결연사업추진본부를 구성하여 현재 로또공익재단과 조선일보 우리이웃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결연사업은 지난 3월 2일 로또공익재단과 조선일보 우리이웃과 함께 발대식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번 결연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핵가족 고령화 등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중심 홀로 사는 노인의 급속한 증가 과정에서 자살, 사망 후 방치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 노인보호의 실천이라는 점에 있다.

특히, 발대식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차원에서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해 홀로 사는 노인 결연사업에 깊이 공감하였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그리고 로또공익재단의 홍두표이사와 함께 결연시스템을 통해 결연신청을 하고, 결연증서를 한재협 김용년 회장으로 부터 전달받는 등 결연사업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신명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쓰리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재가노인결연사업추진본부는 전국의 홀로 사는 노인들을 좀 더 빨리 지원하기 위해 지난 석 달간 홀로 사는 노인 결연시스템



▲ '홀로 사는 노인 결연사업'에 참여한 기수 김창완씨, 홍두표 이사장, 기수 현숙씨, 김근태 장관, 방상훈사장(왼쪽부터)이 결연 증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 조선일보 우리이웃 허영한기자

(DB)을 구축하였는데, 홀로 사는 노인결연시스템은 전국의 홀로 사는 노인의 현황을 집계한 데이터베이스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 결연사업이 초기이기에 전체 재가노인보다는 재가노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결연을 진행되는 점이 한계라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면 재가노인들이 결연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결연시스템의 기능은 후원자들은 결연사업본부의 홈페이지(www.scce.or.kr)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조건에 맞는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 금품뿐만이 아닌 물품, 자원 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전국의 홀로 사는 노인들의 현황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결연에 대한 욕구를 DB로 구축하여 보다 빠르게 후원자와 대상노인과의 1:1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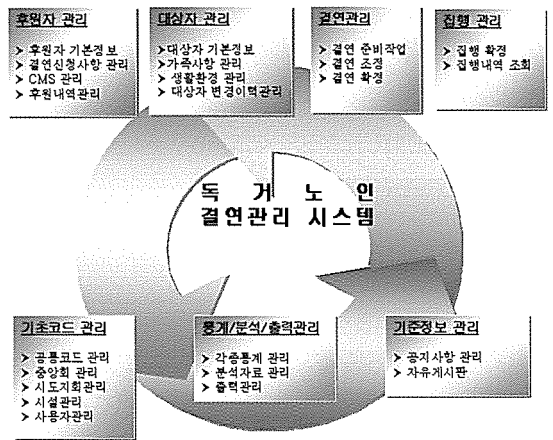
하지만 결연사업시스템은 어디까지나 결연을 위한 도구일 뿐 사람중심의 1:1결연을 전국적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만원의 행복결연의 1구좌 만원의 행복결연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사랑의 쓰리(Three)랑 자원봉사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사랑의 쓰리랑은 나 자신의 자원봉사활동,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활동,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활동의 3가지 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홀로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명나는 쓰리랑으로 편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입니다라기보다 할머니, 저 쓰리랑이에요. 아시죠? 라는 말 한마디로 홀로사는노인과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전개해나가고자하는 욕심 또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 결연사업추진본부는 전국의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5명의 발마사지가 한 팀이 되어 지역사회의 노인의 발마사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다섯 발가락의 전문 자원봉사대를 모집하고, 여러 기업과 유관 단체 등을 통한 물품후원, 긴급지원, 모금방송, 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실상을 알리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지원해나갈 것이다.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및 재가노인결연사업 홈페이지. 재가노인결연사업 홈페이지는 현재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4월중에 완성될 예정이다.



▲ 결연시스템 구조

또한 지역 사회 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결연사업은 단지 어느 한 단체에서가 아니라 사회단체가 모두 연대해서 함께해나갈 부분이기에 재가노인결연사업추진본부는 앞으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나갈 계획이기도 하다. 

자료제공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결연사업추진본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7-7(2층)
Tel : 02-2632-8738
Fax : 02-584-8756